제4회 충청광역연합의회(정례회)

본 회의록 제 1 차

충청광역연합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5월 1일 (목) 14시 00분

장 소 충청광역연합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 제4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제4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 의사보고 1면
- 1. 제4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77) 2면
- 2. 제4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78) 2면
- 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79) 3면
- 5분 자유발언(구형서 의원) 4면
- 5분 자유발언(신영호 의원) 5면

(14시 11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유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보고

○ **총무담당관 김미희** 총무담당관 김미희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상황입니다.

의장이 제의한 제4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 의회운영위원회장이 제안한 충청광역연합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안치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광역연합 금강수계 물환경 모니터링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모두 6건을 접수해서 본회의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4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3건입니다.

그리고 구형서 의원님과 신영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직무대리 유인호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77)

(14시 13분)

○의장직무대리 유인호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4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합니다.

(회의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열네 분 중 찬성 열네 분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제4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78)

(14시 14분)

○의장직무대리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정례회 회

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4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박란희 의원님과 이옥규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4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

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79)

(14시 16분)

○ **의장직무대리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일부터 5월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려는 것입니다.

(회의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형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구형서 의원)

(14시 17분)

○ 구형서 의원 존경하는 560만 충청권 시도민 여러분!

유인호 충청광역연합의회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충청광역연합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 천안시 제4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충청광역연합의회 구형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외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광역연합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메트로폴’ 제도는 도시권역 내 다양한 지자체들이 연합하여 경제 개발, 교통, 주택 등의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며, 중앙정부로부터 독자적인 법적 지위와 재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광역지역연합’을 통해 주요 도시권에서 지역계획, 교통, 경제 진흥 등의 공동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률에 의해 명확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며, 직접 선출된 의회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간사이광역연합’은 교토·오사카 등 2부 6현 4정령시가 참여하는 초광역 협력체로 방재, 관광, 산업 등 9개 분야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며 중앙정부와의 직접 협력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현재 우리 충청광역연합은 여러 현실적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 실질적인 권한의 부재로 각 시도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양받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광역연합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 부처가 가진 권한의 일부를 이양받아야 함에도 현재는 4개 지자체로부터 이관받은 20개 사무와 국가 위임사무 1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둘째, 재정적 기반이 취약합니다. 2025년 광역연합의 예산 규모는 고작 56억이며, 4개 지자체별로 14억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 광역연합체들이 갖는 독자적 세원이나 중앙정부의 안정적 자원 지원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최소 50억 원씩은 출연해야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제도적 미비점이 심각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정책 지원 인력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넷째, 초광역 사업의 구체성이 부족합니다. 산업·경제와 사회문화 분야의 초광역 사무는 추상적이고, 각 시도별 역할 분담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의 우선순위가 모호하고 체계적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섯째, 지역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합니다. 최근에는 대전과 충남의 행정 통합 추진, 세종시의 행정수도 독립성 강화, 충북의 중부 내륙 연계 발전 등 각 지자체별 상이한 이해관계로 광역연합의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첫째, 프랑스 메트로폴 사례처럼 중앙정부와의 분권 협약을 통해 광역연합에 적합한 국가 사무의 위임 또는 이양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이때 세무 권한과 재정 이양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독일의 광역지역연합처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특별교부세 지원 등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구성 지자체의 분담금도 현실화해야 합니다.

셋째, 일본 간사이광역연합처럼 정책지원관 배치가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넷째, 초광역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섯째, 구성 지자체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일방적 탈퇴에 따른 책임을 규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충청광역연합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껍데기가 아닌 실질적인 지역발전의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해외 선진 사례에서 보듯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충청권의 상생발전, 나아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유인호** 구형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신영호 의원)

(14시 22분)

○ **신영호 의원** 존경하는 충청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인호 충청광역연합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충북 충청광역연합장님, 매번 출석에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청광역연합의 최서단에 위치한 서천군 출신 신영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의 안정적인 운영과 체계 확보를 위해 이번 대선 공

약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구형서 의원님께서 해외 사례를 들으면서 우리 광역연합이 또 의회가 나아갈 방향을 잘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출범 100일을 맞는 충청광역연합이 또 의회가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력에 함께 힘을 모으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은 지난해 12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정서적으로 유사한 충청권이 메가시티 구축을 목표로 충청광역연합이 본격적으로 출범했습니다.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에 따라 도입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때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광역연합은 전국 최초로 출범한 특별지방자치단체입니다. 하지만 운영 및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고 지자체의 특별회계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자립도를 고려한다면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허울에 불과한 것입니다.

달리 말해 연합과 연합의회는 당초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계획안과 예산안 협의·승인 등 대부분의 사무 권한도 정부로부터 이양받지 못하고, 이를 실행할 재정적인 여력도 없어 단순히 조직을 유지하는 데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광역연합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더 부합되도록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후보 공약에 우리 충청광역연합과 충청광역연합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과 권한 이양이 꼭 포함될 수 있도록 연합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 둘째, 충청 생활권 확장을 위해 자치권 확대, 그리고 충청권의 광역적 연계가 필요한 기능에 대해 충청광역연합이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요 정당의 후보들에게 공약에 반영시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런 건의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연합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기 정부는 행정 체계 개편이 아마 화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이 적기이고 통합보다는 저희 같은 광역연합의 모델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행정 체계 개편을 위해서 좋은 선도적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청광역연합은 우리 대한민국의 선도적 모델이 되어야 하고 연합은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충청인의 실리를 챙겨야 합니다. 광역연합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김영환 충청광역연합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연합의회 의원님들께 적극적인 자세와 관심을 가져 주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세종시에 있는 해양수산부를 부산광역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하는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지역지에서 많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진정한 행정수도의 완성을 불식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동해·서해·남해 모두 다 특징점이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는 그 특징점을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면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은 지역을 배분해서 고루고루 지역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해양 정책은 모든 게 부산에 초점이 맞춰질 겁니다. 남해 중심의 해양수산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야말로 세종시에 있어야 될 지리적 위치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역의회 취지와 역할은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시는 겁니다. 충남·충북·대전·세종 현안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광역의회가, 우리 연합이 함께 힘이 되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더욱 선도적으로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의 개헌 문제도 역시 광역에서 녹여내줘야 더욱더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하시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광역의회와 광역연합이 더욱더 잘 전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인호** 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충청광역연합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본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연합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8분 산회)

○출석 의원(14인)

구형서	김광운	김선광	김응규	김현미	박미옥	박주화	신영호
안경자	안치영	유인호	이옥규	이한영	조성태		

○청가 의원(2인)

노금식 박란희

○의회사무처

처 장 이재만

총무담당관 김미희

○출석 공무원

〈충청광역연합〉

연합장 김영환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초광역자치과장 박승일

초광역산업문화과장 이철구

초광역건설환경과장 오세준

○표결 결과 및 찬반 의원 성명

1. 제4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구형서 김광운 김선광 김응규 김현미 박미옥 박주화 신영호

안경자 안치영 유인호 이옥규 이한영 조성태

2. 제4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구형서 김광운 김선광 김응규 김현미 박미옥 박주화 신영호

안경자 안치영 유인호 이옥규 이한영 조성태

3.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구형서 김광운 김선광 김응규 김현미 박미옥 박주화 신영호

안경자 안치영 유인호 이옥규 이한영 조성태